이정훈 "뜨거운 5월 다시 한 번"

이정훈

KIA, 엔트리 변경에 1군 합류
지난해 5월 18경기 0.364 타율
"타격도 수비도 열심히 노력"

이정훈이 뜨거웠던 5월 기억을 살려 '호랑이 군단' 5월 반전에 힘을 보탠다.

답답한 타격으로 어려운 봄날을 보낸 KIA 타이거즈는 3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 앞서 엔트리를 변동하면서 분위기를 전환했다.

허벅지 부상으로 빠졌던 박찬호가 복귀와 함께 이날 리드오프 겸 유격수로 배치됐고, 김석환을 대신해 또 다른 좌타자 이정훈이 1군에 콜업됐다.

김종국 감독은 "(김석환의)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퓨처스리그에서 자신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변화를 줬다"며 "이정훈은 포수도 되고 1루수 훈련을 같이 하고 있다. 대타, 지명타자로도 볼 수 있고 퓨처스에서도 성적이 좋아서 추천을 받았다. 활용가치가 높은 선수라고 볼 수 있다"고 엔트리 변동에 관해 설명했다.

이정훈은 올 시즌 퓨처스리그 11경기에 나와 28타수 11안타, 타율 0.393 1홈런 6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시즌 첫 콜업을 받은 이정훈은 "열심히 했습니다. 준비는 다 됐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정훈은 지난해 야구 인생 최고의 순간과 힘든 순간을 동시에 겪었다.

최형우가 망막 이상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뜨거운 봄날을 보냈다. 이정훈은 5월 18경기에 나와 0.364의 타율을 기록했고, 2개의 홈런으로 10타점도 만들어냈다.

최형우의 공백을 잊게 하는 좋은 활약을 선보였지만 이정훈의 가을은 쓸쓸했다.

9월 12일 NC와의 홈경기에서 대타로 나와 유격수 땅볼 때 1루로 전력 질주를 했던 이정훈은 우측 발목 인대 부분 파열 부상을 입었다. 십자 인대 부상으로도 힘든 시간을 겪었던 이정훈은 수술대에 올라 아쉽게 시즌을 마감해야 했다.

이정훈은 "작년 전반기에는 너무 행복했다. 후반기에는 부상때문에 힘들었다. 수술하고 누워있는데 짜증났다. 통증은 오고 야구 보는데 스트레스받고 힘들었다"며 "살을 많이 뺐다. 숙소 자원해서 들어가서 살도 진짜 많이 뺐다. 재활에 전념하면서 열심히 해서 빨리 복귀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정훈에게 기대하는 것은 승부의 추를 기울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의 타격이다. 이정훈도 자신에게 기대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

이정훈은 "일단 나가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잘하려고 하겠지만, 잘하려고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닌 만큼 하던 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내 장점은 방망이라고 생각하니까 경기 나가면 잘 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비도 열심히 하고 있다. 1루 수비를 하는데 움직임이 좋아진 것 같다. 코치님들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신다. 많이 배운다고 생각하고 항상 배운다는 생각으로 하겠다"며 "제일 기대되는 게 달라진 분위기에서 경기하는 것이다. 작년에 경기 나갈 때는 코로나 때문에 조용한 분위기였다. 팬들의 함성이 기대된다. 분위기도 그렇고 나도 많이 변했다. 재미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호날두(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3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브렌트퍼드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5라운드 홈 경기에서 팀이 1-0으로 앞선 후반 페널티킥으로 두번째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맨유 호날두 18호 골 … 손흥민 1골 차 추격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골잡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7·포르투갈)가 '득점왕 경쟁자' 손흥민(토트넘)을 1골 차로 추격했다.

호날두는 3일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브렌트퍼드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5라운드 홈 경기에서 팀이 1-0으로 앞선 후반 16분 페널티킥으로 득점했다.

앞서 페널티지역 오른쪽을 돌파하다가 상대 수비수로부터 반칙을 유도해 직접 페널티킥을 얻어낸 호날두는 강한 오른발 슈팅을 골대 왼쪽에 꽂아 정규리그 18호 골을 터뜨렸다.

이로써 EPL 득점 랭킹 3위인 호날두는 앞선 토트넘과 레스터시티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몰아치며 정규리그 18·19호 골을 신고한 2위 손흥민을 한 골 차로 따라붙었다.

현재 득점 1위는 22골을 넣은 무함마드 살라(리버풀)다.

그러나 호날두가 4경기 연속골로 득점포가 뜨겁고, 손흥민은 워낙 골 몰아치기에 능해 득점왕 타이틀의 향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다만, 맨유는 2경기, 리버풀과 토트넘은 4경기를 남겨두고 있어 살라와 손흥민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 맨유는 전반 9분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선제골과 후반전 호날두, 라파엘 바란(후반 27분)의 연속골로 3-0으로 완승했다. /연합뉴스

광주FC, 1위 수성 위해 김포 원정길 올라

김포FC 상대 K리그2 13라운드
올시즌 첫 패배 설욕 다짐

6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인 광주FC가 1위 수성을 위해 원정길에 오른다.

광주는 4일 오후 7시 30분 김포솔터축구장에서 김포FC를 상대로 K리그2 2022 13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패배를 잊은 광주다.

광주는 지난 12라운드 부천FC와의 홈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6경기 연속 무패 행진 속에 1위 탈환에 성공했다.

이어 인천유나이티드와의 FA컵 3라운드 원정경기에서는 6골을 몰아넣으면서 6-1로 승리했다. 특히 FA컵에서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과 출전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이 대승을 합작했다.

광주가 최상의 분위기·전력으로 김포를 만난다.

팀을 이끄는 '주장' 안영규와 팀 득점 1위(5골) 헤이스, '광탄소년단'의 핵심 엄지성 등 주전 선수들이 4월 24일 부천전 이후 꿀맛 같은 휴식을 취했다.

또 FA컵에서 성공적으로 복귀전을 치른 김종우, 이찬동, 한희훈, 박준강 등 베테랑 선수들과 함께 멀티골을 기록한 김진영과 하승운 등 젊은 선수들까지 광주는 폭넓은 스쿼드를 가동할 수 있게 됐다.

광주는 K리그2 정상에서 올 시즌 첫 패배를 안겨준 김포를 만난다.

광주는 2022시즌 개막전에서 '신생팀' 김포를 안방에서 만나 1-2패를 기록했다.

김포전 패배는 광주에 쓴 보약이 됐다. 김포 돌풍의 제물이 됐던 광주는 전열을 가다듬고 출발선에 다시 섰다. 그리고 현재 8승 1무 2패(승점 25)로 K리그2 가장 높은 곳에 올라있다.

K리그1에서 활약했던 광주를 상대로 첫 경기에서 승리를 장식한 김포는 김종석, 구본상, 김수범 등 출중한 실력의 핵심 선수들과 함께 신생팀다운 패기와 끈끈한 조직력 축구로 3승 2무 6패를 기록, 현재 9위다.

올 시즌 성적, 최근 분위기에서도 광주가 앞선다.

김포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분위기가 다소 침체돼있다. 앞선 FA컵 3라운드에선 K3리그의 부산교통공사와 연장전 혈투를 벌인 끝에 1-2 패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6경기에서 4실점으로 상대를 묶은 탄탄한 수비를 앞세운 광주는 적극적인 중원 싸움을 벌이면서, 빠른 공수 전개로 상대 골문을 노리겠다는 계획이다.

주장 안영규는 "지금 팀 분위기가 너무 좋다. 특히 선수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활발하다. 하지만 이럴 때 더 주의해야한다"며 "자만하지 말고 매 경기 최선을 다하자고 선수들과 이야기 했다. 김포에 설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챔필서 '어린이날 시리즈'
KIA, 사인회 등 행사 다채

KIA 타이거즈가 '어린이날 시리즈'를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KIA는 3~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홈 3연전을 벌인다. 안방에서 어린이날을 맞는 KIA는 3연전 기간 어린이팬들을 시구자로 초청해 희망을 선물한다.

3일에는 KBO 공식음료 후원사인 동아오츠카 스폰서 데이가 열린다.

이날 승리 기원 시구는 공모 이벤트를 통해 선발된 한아론(10)군이 맡는다. 또 관람객 1000명에게 포카리스웨트를 증정한다.

4일에는 광주시교육청 주관으로 광주 지역 초·중·고교생 3600명이 단체 관람에 나선다.

이날 시구는 광주 초등학교 학생회의 동부의장인 이경은 학생이 담당하며, 시타는 서부의장인 김유진 학생이 맡는다. 애국가는 신용초등학교 방송부 학생들이 부른다.

'어린이날'인 5일에는 갸린이클럽(어린이 회원) 가족을 대상으로 선수단 사인회가 진행된다.

나성범과 김도영이 사인회에 참가해 어린이 팬들에게 추억을 선물할 계획이다.

이날 시구와 시타는 2022시즌 갸린이클럽 회원인 김다람(12·광주) 군과 박시언(11·경기 남양주) 군이 각각 맡는다.

또 선착순 4500명에게 해태제과 '홈런볼'을 증정(선착순 4500개)하고, 선수단은 패밀리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뛴다.

KIA는 경기가 끝난 뒤에는 그라운드를 개방해,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들이 캐치볼을 하거나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야생마' 허인회
매경오픈 2연패 도전
KPGA 메이저급 대회

'야생마' 허인회(35)가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메이저급 대회 GS칼텍스 매경오픈(총상금 12억원) 2연패에 도전한다.

GS칼텍스 매경오픈은 오는 5일부터 나흘 동안 경기도 성남 남서울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다.1982년 창설된 이 대회는 KPGA 선수권대회와 한국오픈에 이어 세 번째로 긴 역사를 지닌 이 대회는 우승 상금이 3억 원에 이르는 데다 우승자에게는 코리안투어 시드 5년을 부여한다. 코리안투어 대회 우승자는 대개 2년 시드를 준다.

아시안프로골프투어를 겸하고 있어 아시안투어 시드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허인회는 이 대회에서 우승, 6년 만에 코리안투어 정상에 올랐다.

허인회는 이 대회 우승을 계기로 정상급 스타 플레이어로 다시 돌아왔다.

올해도 시즌 개막전에서 공동 22위라는 신통치 않은 성적에 그쳤지만, 허인회는 작년처럼 매경오픈을 반등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허인회가 올해도 우승하면 사상 두 번째 2연패 위업을 이룬다. 매경오픈 2연패는 2019년과 2020년 이태희(38)가 유일하다.

통통 튀는 개성으로 주목을 받을수록 힘이 난다는 허인회는 올해는 구름 관중이 반갑다.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탓에 관중 함성 없는 고요한 코스에서 우승했지만, 이번 대회는 관중 입장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매경오픈은 코리안투어에서 가장 관중이 많이 몰리는 대회다.

박상현(39)과 이태희는 이 대회가 아직 허용하지 않는 3회 우승에 도전장을 냈다.

박상현은 2016년, 2018년 두 차례 매경오픈을 제패했다.

이 대회에 앞서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에서 우승한 박상현은 2개 대회 연속 우승도 노린다.

지난해 코리안투어 상금왕과 대상, 평균타수 1위를 석권하고 아시안투어 상금왕까지 올랐던 김주형(20)은 그동안 아시안투어에 주력하다 국내 복귀전에 나선다. 김주형은 이번 시즌 아시안투어에서 상금랭킹 3위를 달리고 있다.

아시안투어 강자들도 대거 출전한다.

아시안투어에서 올해 2승을 따내며 상금랭킹 1위를 꿰찬 미국 교포 김시환은 국내 팬들에게 첫선을 보인다. 아시안투어 상금랭킹 2위 파차라 콩왓마이(태국)도 경계 대상이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로 선발된 국가대표 조우영(21)과 장유빈(20)의 활약도 관심사다.

/연합뉴스